

(전주)

멀어져 가는 저 뒷 모습을 바라 보면서

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

달콤했었지 그 수 많았던 추억 속에서

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리 어떻게 잊~을 까

아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

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 올 거야

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 까

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 나